



달달(?)했던 첫 시험의 추억

‘4월은 잔인한 달’. 학생들이 찢~하게 공감할 문장이죠. 중간고사를 치르는 달 이니까요. 어렵지 않은 시험이 어디있겠나만은, 유독 중2 학생들에게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생애 첫 학교 시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렵고 긴장되는 첫 시험을 달콤하게 만난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남 남면중 김두리 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 치르는 정기고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아이들을 보니 이전 학교에서 했던 이벤트가 떠올랐죠. 시험 일주일 전 부모님들께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습니다.”

두리 쌤의 깜짝 이벤트는 바로, ‘부모님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교직 생활의 절반을 중2 학급 담임 교사로 보낸 자칭 타칭 ‘중2 전담’ 교사의 고민이 담긴 이벤트죠.

“중2는 부모님과 대화가 사라지는 학년이기도 해요. 청소년이 된 자녀들에게 당부를 많이 하고 공부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학생들은 ‘혼난다’고 느끼면서 입을 닫죠. 시험을 계기로 부모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응원을 받으면 학생들이 힘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도 아무래도 말보단 글이 감정을 가다듬게 되고 평소 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스마트폰에 속속 도착하는 부모님들의 메시지를 보며 두리 쌤도 나섰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 같은 시험을 나뉘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엄마는 △△이가 기특하기도, 안쓰럽기도 했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자~~ ^^

내 사랑~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험의 길에 첫발을 디딘 것을 축하한다! ^^ <중략> 입시 시험은 성적으로 줄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전까지는 결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이가 뭘 잘 알고 모르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

그동안 네가 해온 노력이 이미 100점이야. 엄마가 앞서 나가지 않고, 네 뒤에서 따라갈게. 늘 사랑한다.

유쾌발랄
우리학교

생애 첫 시험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리페는...”이 유행할 만큼 빠르게 바뀌는 사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쾌한 쌤들과 발랄한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소소하지만 즐거운 학교 풍경을 담아보려 합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lena@naeil.com)로 제보해주세요! _ 편집자



‘당’ 충전용 쿠키를 준비해 한쪽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반대쪽에 쌤의 응원 문구를 붙였죠. 입도 마음도 달달한 시험 응원 패키지는 시험 보는 날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11명의 소규모 학급,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답답했어요. 편지보다 쿠키에 집중하더라고요. 하하. 이번에 수학 한 과목만 시험을 봤고, 3교시부터 곧바로 정규 수업을 했거든요. 시험 전에 비해 시험 당일은 오히려 긴장이 덜했던 것 같았어요. 아, 집에 가서 먹으려는 제 신선당부에 쿠키 봉지를 바로 뜯지 못해서인지 유독 학교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웃음)”



두리 쌤표 시험 응원 패키지와 이 선물의 주인 공들.



착하고 성실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늘 성실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 착한 ○○○ 이는 복 받을거야!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착하고 성실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늘 성실하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 이 참 기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동작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조용하지만 동작한 ○○○ 이는 공부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잘 맞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늘 성실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조용하지만 늘 성실하게 1인 1역 수행하고 있는 ○○○ 이 참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늘 성실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지난 번 ○○○ 이와 싸워서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잘 나아가서 다행이야.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감격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요즘 ○○○ 이의 성실한 모습을 볼 때마다 기록하고 생각하고 있어! 단단! 앞으로 더 잘 부탁해.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독독한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지난번 친구와 싸움이 있었을 때 나름 잘 해결하는 ○○○ 이의 모습 보고 기록하는 생각이 들었어.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재미있는 ○○○ 이에게 ●●●아 중간고사 많이 준비했니? 어려운 수학 과목 시험이지만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 사용하는 단어 등을 보고 들으면 독독한 아이라는 걸 느껴. 좀만 더 공부에 힘을 쏟아보자! 파이팅이고, 100점 맞길 바라!

같은 듯 다르게, 들여다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드러나는 두리 쌤의 응원 문구.

달콤한 첫 시험의 추억을 쌓은 학생들, 다음 시험은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대부분의 과목을 봐요. 처음으로 시험 기간다운 시험 기간을 맞이하는 셈이죠. 한창 더울 때기도 해 더 ‘진한’ 당과 마음으로 학생들을 응원해 보려고요.”

세상 가장 달달한 시험을 볼 남면중 2학년 학생들, 기말고사에서 한층 진해질 응원을 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라요! ^^@